



농수산물 수출 Zoom In 86호

「수출 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발간

I
·
‘배 수출 활성화 전략 포럼
[공개 토론회]’ 온라인 개최



II 식물검역 「디지털 증명서 시대」 개막



III 「국산 사과배·복숭아 대만 수출 쉬워졌다」



농수산물 수출 Zoom In 86호 2021. 5. 3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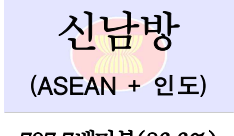













‘21.4.30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35.3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10.3% 486.6백만불	  16.0% 2,243.5백만불	  8.8% 800.7백만불
+ 인삼류, 김치, 딸기, 유자 - 가금육류, 파프리카, 버섯류, 배	+ 라면, 커피조제품, 음료, 장류 - 연초류, 소주, 맥주	+ 김, 참치, 오징어 - 굴, 미역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미국 534.8백만불(13.1%)	중국마켓 연계 배, 버섯 판촉(4.30~6.16)	 라면(18.8%), 김치(56.9%)  김(△7.6%), 버섯류(△22.6%)
  중국 560.9백만불(18.0%)	화북지역 유통매장 연계 장류 판촉 텐진 주요 로컬유통매장 연계 주류 판촉 중국 쿤밍지역 온라인 판촉사업	 김(56.0%), 음료(58.0%)  주류(△33.3%), 생우유(△14.6%)
  신남방 (ASEAN + 인도) 797.7백만불(26.6%)	T&D Shop 등 연계 임산물 판촉 Aeon mall 등 연계 가공식품 판촉	 참치(28.2%), 음료(21.8%)  김(△3.7%), 닭고기(△32.0%)
  홍콩 175.7백만불(4.4%)	대만 px마트 연계 인삼 판촉	 김치(16.6%), 딸기(31.9%),  인삼(△22.5%), 소주(△11.9%)
  EU (영국 포함) 208.9백만불(5.4%↑)	파리 국제기숙사촌 연계 홍보 행사	 참치(32.0%), 라면(18.1%)  커피(△40.0%)
 김치(42.7%), 참치(11.9%)  굴(△26.5%), 소주(△19.0%)	돈키호테 종합판촉(4.1~6.30/월드프렌드) Qoo10 연계 온라인 판촉(4.1~30)	 일본 641.5백만불(△0.9%)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86호 2021. 05. 31(월)

품목별 이슈

* 실적 : '21.1.1 ~ 4.30

□ 김치

- 코로나19로 가정용 수요 증가 및 발효식품 관심 증가로 수출실적 상승세 지속
- 미국 내 메이저 유통매장 입점으로 김치 수요 꾸준히 증가

61.1백만불(35.4%)

주요 수출국 : 일본(32.0백만불, 42.7%), 미국(11.1, 56.9%), EU, 영국(5.5, 45.5%), 신남방(3.2, 22.7%)

□ 인삼

- 건강식품 관심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아마존 등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및 아시아 마켓 중심 수요 증가에 따라 바이어 발주 지속 증가

78.8백만불(18.6%)

주요 수출국 : 중국(28.7, 16.7%), 신남방(13.3, 94.6%), 미국(10.3, 64.2%),

□ 유자차

- 면역력 강화 등의 건강기능 특징으로 한인층 및 미국 주류층에서의 소비 증가, 중국 내 전자상거래 활용도가 높은 2030세대의 유자차 소비 증가 및 카페 매장 내 신메뉴 출시로 수출액 증가

17.4백만불(22.5%)

주요 수출국 : 중국(6.2, 26.2%), 미국(4.1, 22.6%), 일본(2.0, 8.3%)

□ 참치

- 냉동 가다랑어, 황다랑어 수출 증가. 통조림 원료용 원물과 횡감용 참치의 수입수요 상승

200.7백만불(28.9%)

주요 수출국 : 신남방(69.6, 28.2%), 일본(60.8, 11.9%), EU, 영국(36.9, 32.0%)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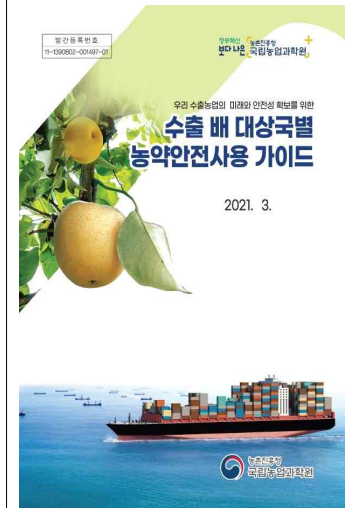


「수출 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발간

농촌진흥청은 한국산 수출 배의 농약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 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배 수출 규모는 2020년 기준 2만 3,556톤(7,170만 달러)이다. 이 책은 우리 배 주요 수출국인 미국, 대만, 홍콩, 캐나다 등 9개 나라별 병해충에 사용 가능한 농약 목록과 사용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각 농약의 최종 살포일, 살포 횟수, 희석 배수, 나라별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정보를 수록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수출업체, 농업인,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하였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수출 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배 수출 활성화 전략 포럼(공개 토론회)’ 온라인 개최

농촌진흥청은 한국배수출연합(주)과 함께 ‘중국산 배의 한국산 둔갑 방지 대책 및 배 신제품 보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4월 29일, 산·학·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 포럼(공개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요 배 수출국 시장에서 중국산 배가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제품 배의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원산지 둔갑 문제의 주요 해결 방안으로 △수출 통합조직 공동브랜드 주요 수출국 상표권 등록 △원산지 확인 QR코드 제작 △한국산 배 온라인 홍보 판촉행사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배 신제품 6종(‘조이스킨’, ‘설원’, ‘그린시스’, ‘슈퍼골드’, ‘신화’, ‘창조’)을 소개하고 보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배 신제품 보급 확대 방안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술 개발 △농가 현장 기술지원 확대 △소비자별, 시기별 맞춤 홍보 △신제품 시범수출 및 소비자 평가 확대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농촌진흥청은 배는 신선 농축산물 수출 5위 품목으로, 작년 7,17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수출 1억 달러 달성에 가장 근접한 과수 품목이다. 앞으로 배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식물검역 「디지털 증명서 시대」 개막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체계도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5월 10일부터 농산물 수출입 통관 시 기존의 종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 대체할 수 있는 국제시스템을 미국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산물을 수출입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상대국 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 위조 등의 우려가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구축과 도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국가 간 시범운동을 추진했고, 최근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사용에 합의했다. 검역본부는 추후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역 중인 개도국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식물검역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 사과·배·복숭아 대만 수출 쉬워졌다」

-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고시의 개정은 작년 12월 개정된 통합 고시인 신선농산물의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맞추어 개별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반복해서 수출검역단지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수출검역단지로 한 번만 등록하면 다음 해에는 재지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등 등록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또한,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의 과실의 선과와 포장작업을 국내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과 동시 선과·포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산 농산물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지원할 것이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